

신설학교 명칭 주민선호도 반영

전북교육청 교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시행... 심의위원 30% 학부모 참여

전북교육청은 학교명칭 제정과정에서 학부모 참여 확대 등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는 절차를 담은 '교명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교육지원청이 신설 학교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신설 학교 이름을 지을 때 해당 교육지원청이 시민공모 절차를 거쳐 수립된 여러 후보군 중 지역교육청이 위촉한 내·외부 인사들이 모여 교명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왔다. 현재 대부분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절차를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교육지원청이 전주만성개발지구 내에 2019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양현초의 학교명을 황방산의 이름을 딴 '황방초'로 결정했지만, 이후 "부르기도 어렵고, 시대에 맞지 않는 한자 교명"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 간 찬반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새로 도입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는 심의위원회에 공개모집 방식을 거친 학부모 대표가

30% 정도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명칭 제정시 심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학교명칭을 제정하지 않고 주민 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지침 적용시기는 2018년 7월 이후 전북도의회에 상정될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에 담긴 신설학교 명칭부터 일괄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학교명 제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제정이 완료된 전주 만성지구의 가칭 양현초, 익산의 가칭 송리유치원이 모두 이번 지침을 적용받아 학교명 제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도교육청은 신설학교들의 법규상 명칭을 최종 확정하는 도의회 심의 시 동일 회기 내에 함께 상정하는 학교들의 교명 제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심의 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육지원청의 학교명칭 제정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추가의견 반영 요구 민원은 최근 세종시, 양산 신도시 등 신도시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입법예고 후 지역정서 반영 미흡으로 찬반여론이 거세져 사도교육청이 시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교명을 재선정하고 입법 예고를 다시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가 건축물 '무어서원: Mua House'로 2018 K-DESIGN AWARD에서 골드메달을 수상했다.

박기우 교수, K-DESIGN 골드메달 수상

산업·공간·커뮤니케이션 등 3개 분야 15개국 참여 '무어서원' 전통한옥·콘크리트·유리로 만든 주택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가 건축물 '무어서원: Mua House'로 2018 K-DESIGN AWARD에서 골드메달을 수상했다.

K-DESIGN AWARD는 세계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로 전 세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디자인을 선별해 시상하는 국제 공모전이다.

올해 진행된 K-DESIGN AWARD는 출판 분야가 산업 디자인, 공간 디자인(건축), 커뮤니티 디자인 등 3개 분야로 나뉘진 가운데 15개국에서 참여한 39명의 심사위원이 총 3,000개가 넘는 작품을 대상으로 공평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오는 8월 2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무어서원'은 전통한옥과 노출 콘크리트, 유리로 만든 비정형 형태의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는 주택으로 박기우 교수는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 탐사에서 작은 절을 둘러싸고, 각각 다른 높이의 수십 개 석탑이 이루어 내는 장엄하면서도 고요한 공간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가져 왔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한편, 박기우 교수는 미국 아이비리그 컬럼비아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3년간 세계건축의 거장 프랭크게리,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뉴욕, 런던사무소에서 프로젝트 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신기술 디지털디자인 bim 설계를 도입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대 황진 교수 최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 황진 교수(사범대학 교육학과)가 최근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 남태평양 스포츠심리학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와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30여국가가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스포츠심리학 학술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황진 교수와 서빈, 광해봉, 조양 등 중국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논문 'Cross-cultural comparison of BAS/BIS system in physical Activiti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adolescents'를 발표해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황진 교수는 "중국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룬 연구 결과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포츠-운동 심리학 분야에서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전북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대, 지역 스타트업 육성 나선다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협약... 차별화된 창업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원장 최용석)과 전북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10일 전북대학교 본부 4층 총장실에서 이남호 총장과 최용석 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획일화된 기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탈피한 차별화된 창업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 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현장에서의 아이디어를 체계화 및 인큐베이팅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는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전북대 상과대학(학장 박상준 교수)이 아이디어 인큐베이팅을 구축함으로써 창업 관련 프로그램, 교수진, 기업관련 전문가 및 투자자들의 지원 등 가능한 인프라를 활용해 효과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남호 총장은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둔화와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는 전라북도의 일자리창출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국가성장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라며 "획일화된 청년 창업 지원을 탈피해 우리대학의 창업 인큐베이팅 우

수 인프라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맞춤형 지원이 결합된다면 우수한 창업자들에게 대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석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은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해 사업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와 면밀한 교육을 통해 전북의 창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창업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특화 창업산업을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가 2016년 1월에 출범했다. 전라북도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도내 각종 문화사업 및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지역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오늘 실시

도내 98교 1만9915명 응시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늘 오전 8시10분부터 실시된다.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이번 시험에는 도내 98개 고교에서 3학년 재학생 1만9,915명(한국사 기준)이 응시한다.

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영역에 대해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오후 4시32분까지 진행하며, 평가 결과는 27일 통지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전북도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고교영역별 학력실태 분석과 수업 장학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 개인별 학업성취 수준 진단과 진로 결정에도 참고 자료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